

# '폐현수막 자원 순환 생태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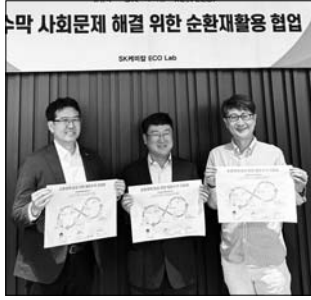
### 군산시·SK케미칼, 폐자원 순환 재활용 기술로 새로운 해법 제시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SK케미칼과 손잡고 폐현수막 폐기물 문제 해결에 나섰다.

26일 판교에 위치한 SK케미칼 본사 사옥에서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사업개발본부장, 이준서 리벨롭 대표는 '텍스타일 투 텍스타일(T2T, Textile To Textile) 재활용 생태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폐현수막을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통해 재생성유로 자원화하는 것으로, 국내 화학업체가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기반으로 폐현수막을 성유로 재활용하는 프로젝트는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SK케미칼과 군산시는 폐현수막으로 만든 재생성유가 다시 현수막으로 사용될 수 있는



폐현수막을 화학적 재활용 기술로 이룰 순환 재활용 페트(PET)로 만들어 공급, 리벨롭은 순환 재활용 소재로

현수막 원단을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생태계가 세워지면 수거된 폐현수막은 PET 섬유로 가공되어 현수막 제조에 쓰이고, 버려지면 다시 또 재활용되는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다.

군산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에서 발생하는 연간 약 50톤의 폐현수막을 재생성유로 자원화해 재활용율을 높일 계획이며, 4분기부터는 전북지역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학적 재활용 상업화를 구축하고 있는 SK케미칼과의 협력을 통해 폐현수막이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재활용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가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중학생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이 특별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 사회의 관심을 받았다.

## '초원사진관 브릭' 굿즈 호응

### 군산시 '중학생 진로체험활동', 지역 축제 연계 특별한 성과

군산시가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중학생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이 특별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 사회의 관심을 받았다.

'중학생 진로체험활동'은 학생들이 평소 관심을 가졌던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체험 활동과 전문가 특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직업 분야 역시 코딩, 게임 개발, 생애네치 등 미래산업 분야부터 음악 프로듀서, 국악 엔터테이너 등 문화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군산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기 탐색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창업 분야 진로체험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군산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초원사진관을 테마로 한 굿즈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특별한 경험을

을 쌓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탄생한 '초원사진관 브릭' 굿즈는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열린 '2024년 군산문화유산이벤트'에서 첫선을 보이며 방문객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박홍순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진로체험을 넘어 지역 사회와 청소년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 긍정적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 "여름의 끝자락 치맥으로 시원하게 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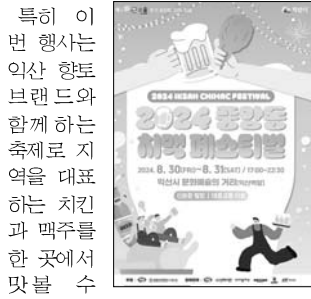
### 익산시, 8월 30~31일, '중앙동 치맥 페스티벌' 문화예술의 거리서 개최

익산시가 무더웠던 여름의 마지막을 시원하게 마무리할 치맥 페스티벌을 준비했다.

시는 오는 30일부터 31일 양일간 오후 5시부터 저녁 10시 30분까지 문화예술의 거리(치킨로드)에서 지역 치킨과 맥주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2024 중앙동 치맥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2024 중앙동 치맥 페스티벌은 오는 30일 오후 7시 개막식을 개최하고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익산 근대역사관을 중심으로 공연과 시민 참여 행사가 진행된다.

행사장에는 치맥 부스 12개소와 다양한 간식이 있는 이동식 매대 7개소, 문화예술의 거리 협의체와 함께하는 프리마켓 9개소 등이 운영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익산 향토 브랜드와 함께 하는 축제로 지역을 대표하는 치킨과 맥주를 한 곳에서 맛볼 수 있다.

골 운영을 개시할 치킨로드 1호점을 비롯해 익산시를 대표하는 하림, 다사랑, 계화림, 개통닭 등을 비롯해 이리 맥주와 세븐브로이 맥주, 하이트 맥주가 참여한다.

치맥부스와 이동식 매대, 프리마켓 모든 매장에서 다이로움 QR결제가 가능하고, QR결제 시 소비자에게 10%를 정책수당으로 추가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가격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개그맨 김재욱과 EDM 아시아 한국남자 1위 DJ인 카주쇼팀 등이 참여한 다양한 무대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더하고 시민 참여 이벤트도 진행된다.

익산아트센터 앞 부스에서 팽 없는 물켓돌리기 행사를 운영한다. 치맥 축제 방문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총 1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풍성하게 준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노동안전지킴이' 위촉

군산시는 공사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6일 '노동안전지킴이' 4명을 위촉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었다.

이들은 군산시가 발주한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 민간사업장까지도 향후 점검 대상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노동안전지킴이의 주요 활동으로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 신고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등이다.

이때 경미한 안전조치 미흡 사항은 현장 관계자에게 자율 개선을 권고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엔 고용노동부에 특별감독을 요청하는 등 철저한 사후 관리도 진행한다.

이번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은 군산시의회 서동문 의원의 발의로 2023년 11월 15일 제정된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통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관리 책임 의무가 강화되는 상황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자살예방의 날 맞아 생명사랑 챌린지 진행

익산시가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챌린지를 진행한다.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양찬모)는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생명사랑! 함께 걸9·10어용(걸구싶어용)' 챌린지를 진행한다.

챌린지 기간 모바일 앱 '워크론'을 이용해 9만 1000보 걷기(하루 9100보 제한)를 달성하면 된다. 목표 걸음을 달성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300명을 선정하고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참여 신청은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워크론'에서 할 수 있다.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워크론

을 설치하고 익산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해 '생명사랑! 함께 걸9·10어용'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양찬모 센터장은 "이번 챌린지가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걸음이 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063-841-4235)는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주말과 야간에는 24시간 자살예방 상담 전화(109)와 정신건강 상담 전화(1577-0199)를 이용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 통

### 군산시, '발달장애인 그림 그리기 대회' 참가 접수

전 연령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산시 '발달장애인 그림 그리기 대회'가 내달 25일, 26일 양일에 걸쳐 군산예술의전당 일원에서 개최한다.

'발달장애인 그림 그리기 대회'는 발달장애인들의 예술적 능력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참가접수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시 평생학습 정보방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참여작품 중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이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군산시장상이 수여된다. 또한 선정된 우수작품들은 군산시청 시민갤러리에 전시된다.

군산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농산물 안전성 높여 안전한 먹거리 조성

익산시 농산물 안전분석실이 우수한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지역 농산물 생산에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26일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지난달까지 320여 점의 농산물을 검사했다. 이중 약 83%를 차지하는 269점이 로컬푸드에 출하하는 농산물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익산시는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농산물 안전분석실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질량분석기(IC-MSMS, GC-MSMS) 등 최신 분석 장비를 갖추고 잔류농약 성분 463종에 대한 검사를 지역 농업인에게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영국 식품환경 연구원이 주관하는 잔류농약 분석분야 국제비교연구도 평가(FAPAS)에서 만족 등급을 받아 국제 수준의 분석 능력을 인정받았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